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69)

제3부: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9 (2)96사단 주둔지 (8)남조봉
60여년전 잊혀진 갯도 실체 드러나

입력 : 2007. 06.07. 00:00:00



▲남조봉에서 확인된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 갯도진지 내부.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직선형 관통형 갯도 등 10여곳 발견

일제 당시 제주시권 방어 핵심 공간

막연한 이야기는 현실로 다가왔다. 제주시 소재 남조봉(南朝峰·남짓은오름·표고 297m)에서 일본군이 만든 10여 곳의 갯도(坑道)가 발견된 것이다. 남조봉의 갯도구축 실상은 일제패망 60여년 만에 처음 확인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남조봉은 제주시 서부권의 오름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다. 그 이유는 기슭에 군부대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군부대가 자리한 일대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토사수를 위한 일본군 병력이 주둔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일본군이 떠난 빈자리를 현재의 군부대가 채운 것이다. 군부대가 들어서면서 남조봉은 민간인의 출입이 뜸한 오름으로 남아있다. 제주시 권역의 오름들이 시민들의 산책코스로 각광받지만 남조봉만은 여전히 칙칙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태평양전쟁이 끝난 뒤 60여 년 세월이 흐르면서 남조봉의 갯도는 서서히 잊혀져갔다. 단지 많은 갯도가 구축됐고, 전쟁 후에 갯도내부의 갯목을 뜯어다 건축자재 등으로 이용했다는 이야기들만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떠돌 뿐이었다.

남조봉의 일제 군사시설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팀은 최근 두 차례에 걸친 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인근의 민오름이나 광이오름처럼 남조봉에도 많은 갱도가 구축돼 있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남조봉은 바로 동쪽에 있는 민오름과는 아스팔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광이오름과는 사면이 맞닿아 있다.

남조봉의 갱도는 남동쪽 사면을 중심으로 직선형과 관통형 등 다양하게 구축돼 있다. 또 남조봉 사면에는 갱도가 무너진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 확인되는 갱도와 입구가 무너진 곳 등 모두 10여 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시선을 모으는 것은 계곡처럼 보이는 굽부리에 형성돼 있는 갱도다. 이 갱도는 오름사면에서 시작돼 분화구내 상단부로 관통돼 있다. 그 길이는 60여 m에 이른다. 반대편 지점에서 무너진 갱도 흔적이 확인된다.

특이한 것은 분화구 아래쪽에도 직선형갱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갱도는 길이가 20여m로 작지만 너비가 약 3m에 이르는데다 높이도 2m 가까이 될 정도로 내부 동공의 규모가 크다. 갱도 내부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막기 위해 비닐이 쳐져 있는 상태다. 철로 된 길다란 먹이통 등이 놓여있는 것으로 보아 방목중인 염소 사육공간으로 이용되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조봉에서 현재 확인되는 갱도 가운데 가장 긴 것은 길이가 1백여m 정도 된다. 이 갱도 역시 입구는 두 곳으로 나 있다. 내부에도 방처럼 생긴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갱도내부 천장이 무너져 높아진 모습.

남조봉의 갱도는 그 자체의 규모가 클 뿐 아니라 비교적 완성도 높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관심이 간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남조봉에서는 해안가인 사라봉과 별도봉은 물론 한라산 정상까지 한눈에 잡힌다. 한라산 정상에서부터 어승생악~노리손이~검은오름~상여오름~광이오름~민오름이 쭉 뻗어내렸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한라산 화산구조선의 하나로 보기도 한다. 남조봉 주변은 민오름과 광이오름 상여오름 등으로 둘러싸인 광활한 개활지다. 이런 지형적 조건 때문에 이 일대는 태평양전쟁 말

기 제주시 권역의 방어를 위한 핵심공간이 된다.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이 작성한 군사 지도인 '제58군배비개견도' 등에도 이 일대는 '주저항진지'로 표시돼 있다. 즉 남조봉과 민오름 광이오름 상여오름 오등봉 일대가 주저항진지로 구축됐던 것이다.



일본군은 이 일대에 제주시 해안으로 상륙하는 미군 등 연합군과 정뜨르비행장(현 제주국제공항)을 방어하기 위해 제96사단 예하의 294연대 병력과 포병 및 대전차부대 등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켜 놓고 있었다. 남조봉에서 확인되는 갱도는 이 같은 태평양전쟁 당시 제주도를 볼모로 최후의 전쟁을 벌이려고 했던 비극의 역사현장인 것이다.

▲남조봉에 구축된 직선형 갱도. 비닐이 둘러쳐져 있다.

이처럼 60여년 전 제주도를 군사기지화 했던 일제 흔적은 그동안 제대로 실태조사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실태조사 및 역사적 조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별취재팀=이윤형 표성준 이승철기자

[탐사포커스]제주 서남부 일대 주저항진지와 유사

오등봉~민오름~남조봉~광이오름~상여오름을 잇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주저항진지는 제주 서남부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군 등 연합군의 상륙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졌던 곳은 바로 제주 서남부인 모슬포·안덕 해안 일대다. 이를 보여주듯 단산~산방산~월라봉~논오름은 '주저항진지'로 요새화 된다. 이 일대에 구축된 갱도와 토치카 등 일제 군사시설은 제주도내에서 가장 높은 집적도와 완성도를 보여주는 곳 중 하나다. 일본군 제111사단 예하의 245연대 병력을 중심으로 포병부대 등이 중점 배치됐다.

이처럼 해안과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군사시설이 만들어진 이유는 알뜨르비행장을 방어해야 하는 임무 뿐만 아니라 미군 등 연합군의 상륙을 1차 저지해야 했던 때문이다.

오등봉~민오름~남조봉~광이오름~상여오름 역시 일본 육군비행장으로 건설된 정뜨르비행장과 제주시 해안가가 상륙예상지점으로 꼽히고 있었던 탓에 대규모 갱도 등이 구축됐다. 그 규모는 제주 서남부에 비견될 정도다.

그렇지만 제주시권의 일제 군사시설은 그 중요성에 비해 제주서남부 일대와 비교해서 실태조사나 역사적 규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